

종합·해설

민주 후보 경선 국민 선거인단 모집 시작 캠프별 100만명 목표... 과열 경계

박준영 “모바일 경선 불공정 우려” 표명

민주통합당은 8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 지난 4·11 총선에서처럼 각종 부작용이 속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회분과 패권이 꽃피는 심는 세레모니를 통해 흥행을 기원했으며, 레오 후에는 콜센터가 위치한 영등포 타임스퀘어 사무실에서 현관식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많은 국민이 참여해 좋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경선이 성대하게 큰 축제처럼 이뤄지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국민 선거인단 접수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9시까지 28일간이며, 콜센터와 인터넷, 당사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모집은 8일부터 24일까지다.

콜센터 접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센터(1688-2000)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현재 300명의 콜센터 접수요원을 댔지만 선거인단 등록자가 증가할 경우 8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는 민주당 홈페이지(www.minjoo.co.kr)나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http://2012win.kr>)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본인이 직접 중앙당이나 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해야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단 등록 시 모바일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대의원은 순회경선 당일 경선장소에서 현장투표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2002년 160만, 2007년 193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던 전

례를 감안, 20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선거인단 모집 개시와 함께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지자를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시키기 위한 각 선거 캠프의 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권 선거와 동원 선거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후보 캠프에서는 많게는 100만명, 적게는 50만명의 국민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 후보 캠프에서 국민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동원 전쟁

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박준영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바일 경선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각 후보 캠프에 조직 총동원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린다. ‘모바일 하나에 얼마만’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며 “후보자 단체 일체의 동원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자를 바탕으로 깨끗한 경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ium@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임재정 선거관리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 8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문을 연 콜센터에서 의원들과 함께 전화번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커진다

검찰, 현기환 자택 압수수색...이정현 등 차명 후원 진술 확보

이 최고위원 전면 부인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8일 현기환 전 의원의 부산시 사하구 과점동 자택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현 전 의원은 4·11 총선 공천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 15일 현영희 의원의 비서 장동근씨와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거쳐 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의원은 당일 조씨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씨가 당일 현 전 의원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의원과 조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이번 주중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수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현영희 의원이 다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게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영희 의원은 검찰에서 정동근 비서가 친박계 실세들에게 후원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이중 일부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일부 친박계 인사를 차명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들 인사가 친박계 핵심으로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전 의원과 현경대 전 의원이란 보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이날 “현 의원 쪽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황당하고도 경악스럽다. 현 의원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다. 따라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국회의원 하면서 후원금을 받으려 해본 적이 없고 따로 모금한 일도 전혀 없었다”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습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아주 위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개인 비리로 접근하면 개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연합뉴스

박근혜 대선가도 ‘악재 털기’ 나서나

5·16 발언·정수장학회·불통 논란 조기정리 가능성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가도에 놓인 악재를 조기에 털어내는 데 부심 중이다.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여론에 불리한 대항 악재들이 선거관을 흔들 경우 자신도 정치적 타격을 비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박 전 위원장이 전날 5·16을 평가한 기존의 발언을 수정한 게 그 시발점으로 꼽힌다.

5년 전 대선 후보 경선에서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밝혔으나 경선 초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5·16에 대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박 전 위원장이 남은 경선기간 TV 토론이나 합동연설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정수장학회나 불통·사당화 논란에 대해 예전과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16 발언 수정 등이 잔가지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박 전 위원장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 “송수스럽다”며 사실상 확인될 경우 엄격히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의혹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며 발을 맞춰지만, 민의 하나 공천헌금 의혹이 개인비리 차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이 의외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야당 뒀 헌법재판관 김이수 유력 검토

민주통합당이 1년 넘게 비어있던 야당 추천 뒀의 헌법재판관 1명으로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8일 “법사위와 원내부대표 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외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를 3명 가량으로 압축했다”며 “김이수 사법연수원장도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지만 내정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2일 조용환 변호사를 야당 뒀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헌법재판관을 구성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

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배려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랑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당원명부 유출’ 소동

당 차원 진상조사...“사실상 공개된 자료”

민주통합당 당원명부가 유출됐다.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8일 정치권은 몸살을 앓았다.

논란은 경남경찰청이 서울의 한 이벤트 대행업체에서 압수한 엑셀파일을 분석한 결과, 4만2000여명의 민주당 당원 명단이 나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지시했다. 한때 당원명부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새누리당은 호재를 만난 듯 민주당을 공격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당원 명부는 정당의 심장 같은 것인데, 민주당의 심장이 전국을 배회하고 있다”며 “사

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 외부로 유출된 명부는 1·15 전대 대의원(2만3000명)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선자(1500명)·광역기초의원(2000명)·4·11 총선 당선자(127명) 등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반당원의 명단이 아닌 사실상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외부 유출자는 지난 1·15 전대에 출마한 모후보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모씨로 파악됐으며 단순 실수로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평련 ‘안철수와 단일화’ 중재역 주목

민주통합당의 일부 정파들이 연말 대선에 대비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중재역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고(故) 김근태(GT) 삼일고문이자 좌장이었던 ‘민주평화연대(민평련)’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민평련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이후 개별적으로 당내 후보들의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김 고문의 부인인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의 최규성 의원, ‘리틀 GT’로 불리는 인연연 의원은 특정 캠프에 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

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으나 손 후보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안 원장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로 읽혀지고 있다.

안 원장과 민평련에 대해 상대적인 호감을 표시해왔다. 안 원장은 지난 해말 김 고문의 빈소를 찾아가 하면, 4·11 총선을 앞두고 인제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시민정치포럼’에서도 김기식·송호창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이 안 원장과 협력을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재테크 무료특강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최근 부동산시장지정망, 부동산경매, 토지투자성공전략~

최근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성공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는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사: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 박사(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최근 부동산 정책과 2012년 재테크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 박사(부동산 마케팅 전공)
- 전남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강사
- 전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강의



강사: 박관식 원부동산 연구소장
“혼란기시대 부동산 시장 예측과 소액으로 성공투자전략”
- MBC-TV 경제교양강좌
- YTN TV 고정출연, 한국전력등 기업체 출강

강의일정

장소	순천앤시백화점 8층 문화센터	광주은행 본점 강당
일시	8월9일(목) 1시30분~3시30분	8월17일(금) 1시30분~15시30분
접수처 (선착순만)	061)720-5700	062)221-1810~2

* 특 전 : (주)다와 옥션 경매 이용권 3만원 증정 HP: 017-613-1808

임대&매매 (수익성 최상)

키즈테마카페 임대

- 뷔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 500대
- 보증금 3억
- 월 2,000만원

예식장, 상생뷔페 임대

-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 500대
- 보증금 4억
- 월 2,500만원

도심형생활주택

- 961㎡(290P)
- ㎡당 150만 / 150세대
- 14억 투자 = 수익9억

수익성 최상!

- 25억 = 월2,600만
- 대지 1,342㎡
- 건물 5,700㎡
- 보4억/월4,300만
- 용자36억 승65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

수익성 부동산매매

-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NPL/특수경매물건

- 도대체 NPL과 특수물건이 무엇인가?
- 왜? NPL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 NPL과 특수물건이 만나면 수익률?
- 세금이 전혀 없다는데?
-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 선착순 4명 한정 / 비법전수
- 주1회 3개월 수료 / 회비 550만원
- 수료중 투자가능 (단독/공동)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